

북한 기도회

2024년 8월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준동맹관계로 격상시키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차기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이게 하기 위해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가 핵 군비 경쟁이라는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홍수 피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압록강 지역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4천1백여 세대의 살림집과 3천 여 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 뿐 아니라 향후 농작물 작황악화와 수인성 전염병 확산 등 이차적 피해도 우려됩니다. 열악한 북한의 상황으로 인해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와 NGO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북한 주민 의식 변화가 복음을 수용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올해 초 오랜 기간 임금 체불에 반발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출신성분과 북한의 철저한 통제, 그리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에는 당과 수령, 국가에 충성하는 것만을 배우고 알았던 북한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당과 수령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믿었던 국가로부터 실망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 강제 복송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3년 10월 중국에서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소규모 복송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시다.



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들의 구명을 위한 교계의 각급 단체의 성명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억류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6.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되신 백 선교사님의 구금기간이 9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백 선교사는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감 중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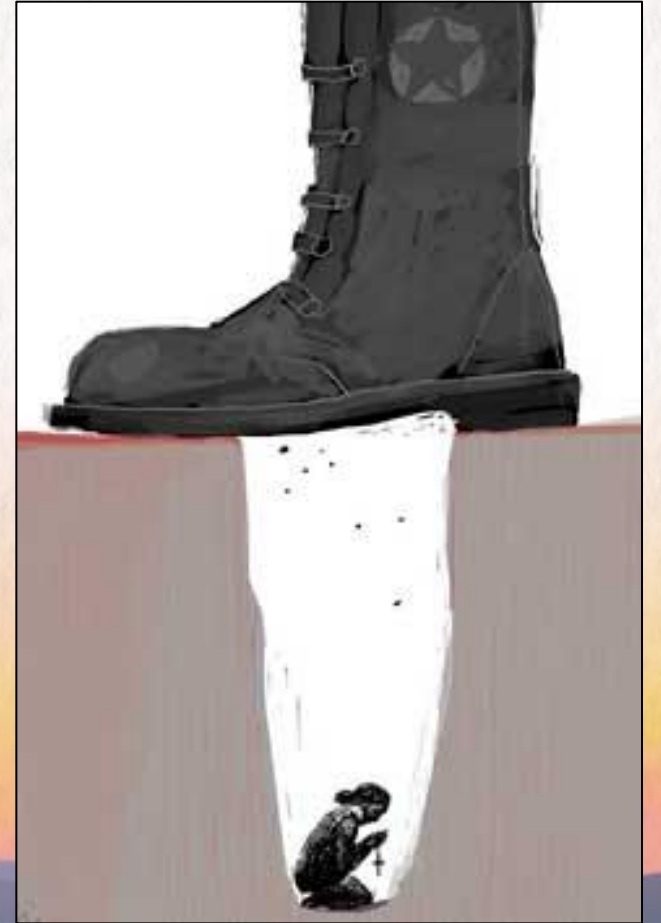


〈백모 선교사가 수감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

7.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최근 북한 내 지하교회들이 적발되는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어림잡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그 강도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끔찍한 악행을 중단하고 회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8.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경지역의 현장 사역자와 북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제목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자 A는 북한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 굴하지 않는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헌신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북한 사역을 힘 있게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양육 받은 성도들이 고향에서도 안전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제 3국에서 얼마 전 복음을 전해 듣고 양육을 받기 시작했던 북한 여성 ‘은하’ (가명)씨가 암 말기인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 긴급하게 기도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두 손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